

낙스 '2005년 그라모폰 올해의 레이블 선정'
Naxos new release



8.557690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협주곡, 그라운 곳에 대한 추억, 왈츠-스케르초
감상적인 세레나데
일라 칼러(바이올린)
러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드미트리 야블론스키

8.557611

복스테후데:
성악작품집 Vol.1
엠마 커크비(소프라노)
존 할러웨이 &
만프레드 크레머(바이올린)
압 테르 린덴(비올라 다 감바)
라스 울릭 모르텐센(하프시코드 & 오르간)

8.557612

알프벤:
교향곡 5번,
인단테 릴리지오스
노르코핑 심포니 오케스트라
니콜라스 빌렌

8.570010

D. 스카를라티:
키보드소나타 Vol.8
이소연(피아노)



8.557126

슈베르트:
현악사중주전집 Vol.7
(현악사중주 5번, 현악오중주
를 위한 서곡, 현악삼중주 외)
코다이 현악사중주단

8.557829

비발디:
바순협주곡 Vol.4 (RV481,
485, 477, 499, 470, 494)
타마슈 벤코스(바순)
니콜라우스 에스테르하지 심포니
벨라 드라호스

8.557665

에른스트:
바이올린협주곡, 콘체르티노,
론도 파파게노, 판타지 브릴
란테, 엘레지
일라 그루베르트(바이올린)
러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드미트리 야블론스키

8.570308

브라이언:
교향곡 4번 '승리의 시편',
교향곡 12번
슬로바 필하모닉 합창단
체코 필하모닉 합창단 외
슬로바 방송교향악단
에드리아 리퍼

8.570221

고든 친: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협주곡, 바이올린과 현을
위한 대만의 사계
초량린(바이올린)
펠리스 펜(첼로)
캔자시티 심포니
마이클 스티븐

8.559132

수자:
관악밴드를 위한 음악 Vol. 6
로얄 아틸라 밴드
키스 브라운



8.559688

슈포어:
현악오중주 7번,
현악육중주 Op.140,
포푸리 Op.22
뉴 하이든 사중주단
아틸라 팔베이(vn)
산도르 파프(va)
타마슈 바르가(vc)

8.570146

로이어:
두 대의 기타를 위한
듀오 콘체르탄테
마테오 멜라 &
로렌조 미켈리 (기타)

8.570181

라이네펬:
클라리넷을 위한 작품들
(클라리넷 트리오,
클라리넷소나타, 환상소품 외)
올리비에르 다르트베유(c)
피에르 앙리 슈렐(va)
장 실(pf)

8.570213

멘델스존:
무언가 발체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편곡)
악셀 슈트라우스(바이올린)
코트 가벤(피아노)

8.559265

울프:
미디안에서 온 사람,
바이올린소나타
카메론 그랜트 &
제임스 윈(피아노-듀오)
조지 플리차니스(바이올린)
개릭 울슨(피아노)

8.559322

루오:
체임버 콘체르토 사이클
인터내셔널 컨템포러리 앙상블
후앙 루오



8.570165

로렌초 델 리우토:
르네상스 류트 음악들
마르코 페시 (lute)

8.557891

레거:
오르간 작품집 Vol.7
에드가 크람
(바소 대성당 오르간)

8.557918

마르티누:
피아노작품집 Vol.2
(목두자시 1-3권, 정원의 봄,
천국의 새와 나비 외)
조르조 쿨리(피아노)

8.559285

아담스:
피아노작품전집
(프라이자의 문들, 아메리칸 버서
크, 중국의 문들, 월벳루아 장선)
랄프 판 라트(피아노)

8.570113

헨델:
오라토리오 <토비트>
솔로이스즈
용에 칸토라이
프랑크루트 바르코 오케스트라
요아힘 카를로스 마르티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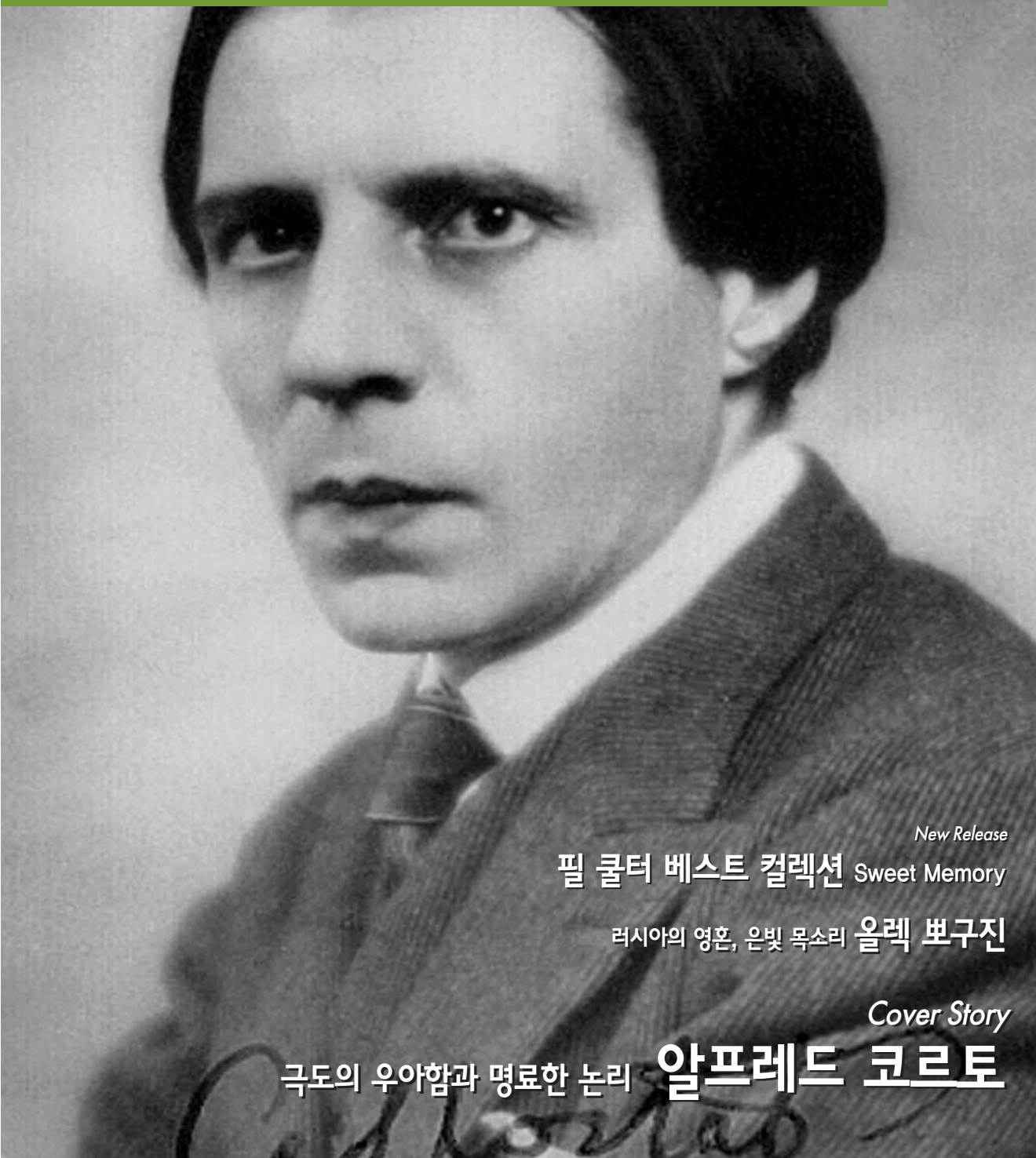
8.557076

슈만:
어린이를 위한 가곡집 Op.79,
리트와 노래 Op.27
시빌라 루벤스(Sop)
슈테파니 이라니(MS)
토마스 E 바우어(Br)
우타 히엘서(pf)

Monthly

Aulos news

월간 아울로스 뉴스 | March 2007



New Release

필 쿨터 베스트 컬렉션 Sweet Memory

러시아의 영혼, 은빛 목소리 올렉 보구진

Cover Story

극도의 우아함과 명료한 논리 알프레드 코르토

극도의 우아함과 명료한 논리

알프레드 코르토 Alfred Cortot

저명한 피아니스트, 지휘자, 선생

알프레드 코르토는 1877년 9월 26일 프랑스인 아버지와 스위스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누이들과 함께 피아노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 시절 클라라 슈만의 연주를 들을 기회도 있었다고 한다. 1896년 파리에서 피아니스트로 데뷔하고 파리 음악원에 입학한 코르토는 루이 디에메르(Louis Diemer)와 쇼팽의 마지막 제자중의 한사람이었던 에밀 드콩브(Emile Decombes)를 사사했다. 코르토는 20세기 탁월한 피아니스트들을 길러낸 유능한 선생으로도 명망이 높았다. 디누 리파티, 클라라 하스킬, 마그다 탈리아페로(Magda Tagliaferro), 이본 르페뷔르(Yvonne Lefebure), 브라드 페를르뤼테르, 상송 프랑스와 등 20세기 전설적인 명 피아니스트들이 바로 코르토의 제자였다.

바그너에 심취했던 코르토는 바이로이트로 건너가 한스 리히터(Hans Richter)등 바그너 지휘자 밑에서 일하는 등, 열렬한 바그너 애호가로서의 모습까지 보여주었는데, 〈트리스탄과 이졸데〉, 〈신들의 황혼〉 등은 바로 그의 손에 의해 파리에서 초연되었다. 그리고 1928년에는 앙세르메, 크리스티에와 함께 파리 오케스트라의 초대 지휘자가 되어 지휘 활동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또 잘 알려진 대로, 코르토는 자크 티보, 파블로 카잘스와 함께 카잘스 트리오의 일원으로도 활동했다. 그러나 그의 본령은 역시 독주 피아니스트였고, 콘서트 피아니스트로서 가장 높이 추앙받았다. 코르토의 레퍼토리는 결코 협소하지 않았지만 쇼팽과 슈만, 리스트, 그리고 드뷔시의 작품에 발군의 재능을 보여주었고, 그중에서도 쇼팽 연주가로서 깊은 이해를 받았다. 코르토의 연주철학은 파리에서 출간된 몇몇 저서를 통해 상세히 파악할 수 있다. 1932년 두 권으로 나온 〈해석강의 Cours d'interpretation〉, 그리고 1930년과 1932년 사이에 나온 〈프

랑스 피아노 음악 La Musique française de piano〉, 1949년에 출판된 〈쇼팽에 대한 견해 Aspects de Chopin〉 등은 코르토의 연주철학을 파악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귀중한 자료들이다.

옛 연주의 향기, 아니 논리

음악에서 우리는 무엇을 듣는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소리를 듣는다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음악에서 소리로 조합된 논리를 듣는 것이다. 소리를 듣는다면, 굳이 음

악을 들을 필요는 없다. 주위의 어떤 물건이든 두들겨서 들으면 되지 않는가. 즉, 우리가 음악을 듣는다고 할 때, 멜로디나 화성 그리고 리듬이 아무리 단순한 것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 안에서 논리를 듣는 것이다. 어떤 애호가도 요즘 연주자들에게서는 별 감동을 못 느낀다고 할 때, 그 말은 요즘 연주자들의 음악적 논리는 그 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애기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만약 우리가 음악에서 소리를 듣는 것이라면, 옛 녹음은 요즘 최첨단 디지털 기술로 녹음된 음반만큼 감동을 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투명한 음질 속에서 탁함을 느낀다는 애호가의 말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

는 것은 바로 음악은 논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사라질 줄 모르는 옛 연주 애호 경향은 단순히 옛날에 대한 향수라기보다는 오늘날 연주가들의 음악적 논리가 옛날에 비해 훨씬 더 불분명하고, 덜 진지하며, 몰개성적이라는데 그 이유가 있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코르토의 해석이 나온 지 이미 몇 세대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것이 화려한 빛을 발하고 있는 데는 바로 이러한 관점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코르토의 연주를 들으면, 오늘날 많은 쇼팽 연주가들과는 달리 우선 매우 개성적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며, 그 느낌이

매우 강렬해서 논리가 분명하게 전달된다. 그는 화려한 기교를 가지고 있지만, 결코 기교주의자는 아니다. 그가 그려주는 그림은 아주 화려하지만, 오늘날 탁월한 기교를 지닌 많은 연주자들의 뛰어난 녹음이 그렇게까지 화려하지는 않은 것을 보면, 외적 기교가 반드시 화려한 그림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확실하다. 요컨대, 코르토의 별반 좋지 못한 음질을 들으며, 어느 누구의 연주 보다도 화려하고 진한 상상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코르토의 내면의 논리를 끌어내는 창조적인 힘이 강렬하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이 대목과 관련하여 미국의 저명한 비평가 헤럴드 손버그의 표현은 깊이 가슴에 와 닿는다. “코르토는 단순한 기교주의자로서의 인상을 주지 않으며, 화려한 비르투오소의 길은 당초에 포기했다. 그의 연주에는 극도의 우아함과 논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제까지 프랑스 피아니스트들이 보여준 것 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육체적, 정서적)을 지닌 ‘재창조적인 음악가(re-creative musician)’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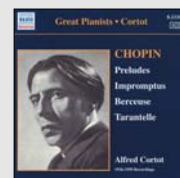
서정, 세밀, 고결, 순수, 유연, 그리고 내용의 힘

그렇다. 코르토의 연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그가 극도로 유연하고 세련된 테크닉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점은 그가 속한 프랑스 악파의 성격을 파악함으로써 대충은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코르토는 사실 모차르트, 쇼팽, 프랑크 등에 놀라울 정도의 세련된 재능을 보이던 프랑스 학파 피아니스트 푸뇨(Pugno)이후에 가장 주목할 만하고, 가

장 탁월한 능력을 가진 피아니스트였다. 그가 지닌 유연성, 세련된 터치, 넘실거리는 서정 등은 바로 이러한 프랑스학파의 전통에서 물려받은 것이다. 또, 코르토가 쇼팽의 제자였던 드콩브를 사사한 것도 주목할 일이다. 그의 연주가 지닌 서정적 세밀함, 고결함, 그리고 순수한 지성 등은 많은 부분이 그의 스승 드콩브에게서 힘입은 바 크다.

코르토의 연주를 한마디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가 없는 지금, 우리는 다만 그가 피아노 문헌을 얼마나 진지하게 연구하고 연주했는지 여러 저서와 음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물려받은 자료들을 통해 우리는 그가 쇼팽처럼,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로 연주해냈으며, 매우 날카롭고 명료한, 그리고 틀림없는 루바토를 구사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코르토는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흐트러짐이 없는 절제를 강조했으며, 항상 엄격한 우아함과 논리로 음악을 재창조하기를 원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쇼팽의 평소 지론을 충분히 견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LP시절 코르토의 음반은 보다 진지한 쇼팽애호가에게 거의 모든 것들이 수집의 대상이 되었었다. 물론 어려움이 많았다. 그때를 생각하면 요즘은 참 풍요로운 세상이다. 이렇게 뛰어난 재생 CD를 저렴한 가격에 소유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비록 오래된 녹음이라 다소 음질상의 약점을 갖고 있긴 해도, 독특하고 의미심장한 위대한 옛 피아니스트의 논리는 아주 소중하게 생각된다.

알프레드 코르토의 녹음 음반들



8.111023
Chopin:
Preludes
Impromptus
Berceuse
Tarantelle

1926-1950 Record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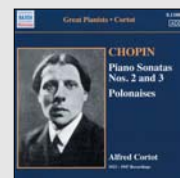
8.111035
Chopin:
Waltzes Nos. 1-14
Fantasia in F minor

1929-1949 Recordings



8.111052
Chopin:
Etudes, Op. 10
Etudes, Op. 25
Barcarolle, Op. 60

1933-1949 Recordings



8.111065
Chopin:
Piano Sonatas
Nos. 2 and 3
Polonaises

1923-1947 Recordings



8.111245
Chopin:
Ballades
Nocturnes

1929-1951 Recordings



www.naxos.com

Naxos New Releases



Naxos 8.557690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협주곡, 그리운 곳에 대한 추억,
왈츠-스케르초, 감상적인 세레나데
일라 칼러(바이올린) / 러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드미트리 야블론스키

이미 파가니니, 이자이 등의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작품들을 통해 낙소스를 대표하는 바이올린 비르투오조로 자리매김한 일라 칼러. 작년 내한 공연을 통해 한국 애호가들의 환호를 받았던 그가 로맨틱 협주곡의 대명사인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협주곡에 도전하였다. 매력적인 소품들인 왈츠-스케르초, 감상적인 세레나데 외에도 작곡가 특유의 아름다운 선율이 돋보이는 바이올린 연작 '그리운 곳에 대한 추억'을 글라주노프의 세련된 관현악 버전으로 함께 수록하였다.



Naxos 8.557126

슈베르트:
현악사중주전집 Vol.7 (현악사중주 5번, 현악오중주를 위한 서곡, 현악삼중주 외)
코다이 현악사중주단

낙소스의 간판 실내악단인 코다이 사중주단의 슈베르트 현악사중주 사이클이 드디어 완결되었다. 마지막 음반에는 작곡가가 16세 때 완성한 현악사중주 5번과 2대의 비올라를 요구하는 색다른 편성의 실내악 작품인 서곡 D.8, 막 성인으로 접어들던 시점에 완성한 단악장의 현악삼중주 등을 수록하였다.



Naxos 8.557829

비발디: 바순협주곡 Vol.4 (RV481, 485, 477, 499, 470, 494)

타마슈 벤코스(바순) / 니콜라우스 에스테르하지 신포니아 / 벨라 드라호스

다양한 악기들을 위해 500편 이상의 협주곡을 남겼던 비발디. 저음역을 보조하는 악기였던 바순 역시 그의 손길을 거쳐서 화려한 독주악기로 거듭났다. 헝가리의 대표적인 바순주자이자 현재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수석을 맡고있는 타마슈 벤코즈의 눈부신 기교가 비발디의 쾌활한 악상을 한껏 돋보이게 한다.



Naxos 8.557565

에른스트: 바이올린협주곡, 콘체르티노, 론도 파파게노, 판타지 브릴란테, 엘레지
일라 그루베르트(바이올린) / 러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드미트리 야블론스키

하인리히 에른스트는 19세기 중반 요아힘과 쌍벽을 이루던 바이올린 비르투오조였다. 파가니니를 연상케하는 화려한 기교로 유럽 음악계를 풍미했던 음반에 수록된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작품들은 연주자로서의 눈부신 기량을 발판으로 작곡한 화려한 작품들이다. 1978년 파가니니 콩쿠르와 차이코프스키 콩쿠르를 석권했던 그루베르트의 화려한 기량과 한때 비에니아프스키가 사용했던 파르테리 델 제수의 매력적인 음색을 이 음반에서 만날 수 있다.



Naxos 8.570308

브라이언: 교향곡 4번 '승리의 시편', 교향곡 12번

슬로박 필하모닉 합창단, 체코 필하모닉 합창단 외 / 슬로박 방송교향악단 / 애드리안 리퍼

영국 근대작곡가 하버걸 브라이언(1876-1972)는 무려 32개의 교향곡을 작곡한 정력적인 심포니스트였다. 그의 교향곡 4번은 그중에서도 가장 방대한 스케일을 자랑하는 작품으로, 소프라노 솔로와 2개조의 거대한 합창단을 필요로 한다. 독일문화에 대한 작곡가의 동경과 열정을 목시록적인 거대한 필치로 완성한 독특한 교향곡이다. 단악장의 교향곡 12번 역시 대편성 관현악단을 위한 거대한 규모의 작품.



Naxos 8.570221

고든 친: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협주곡, 바이올린과 현을 위한 대만의 사계

초량린(바이올린) / 펠리스 팬(첼로) / 캔자스시티 심포니 / 마이클 스텐

고든 친(1957년생)은 대만을 대표하는 현존 작곡가이다. 음반에 수록된 <대만의 사계>는 같은 대만출신인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초량린을 위해 작곡한 것으로, 작곡가 자신이 작품인 같은 제목의 연작시에 기초한 묘사적인 작품이다. 이중협주곡 역시 대만출신의 첼리스트 펠리그 팬과 초량린을 위해 작곡한 작품으로 각각의 표제를 지닌 4개의 악장으로 구성된 독특한 색조의 작품이다.



Naxos 8.559132

수자: 관악밴드를 위한 음악 Vol. 6

로얄 아틸러리 밴드 / 키스 브라운

'행진곡의 왕' 수자가 남긴 수많은 관악밴드를 위한 작품(136곡의 행진곡을 포함)들을 섭렵 중인 로얄 아틸러리 밴드(영국 포병군악대)의 여섯 번째 음반. 디어도어 루즈벨트 여사의 죽음을 추모하는 장송행진곡인 '금별'(The golden star), 1911년 세계 순회공연의 히트곡이었던 '메달', 대표적인 인기곡의 하나인 '글래디에이터' 등이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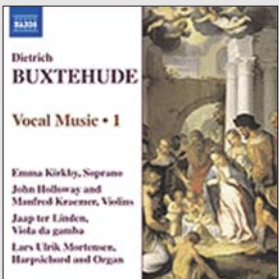


Naxos 8.555968

슈포어: 현악오중주 7번, 현악육중주 Op.140, 포푸리 Op.22

뉴 하이든 사중주단 + 이틸라 팔베이(vn), 산도르 파프(va), 타마슈 바르가(vc)

슈포어는 생전에 독일 초기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인기작곡가였다. 이 음반은 작곡가의 현악오중주 전집의 마지막 음반으로, 베를린 혁명에 대한 작곡가의 반응을 음악으로 표현한 7번 오중주를 포함하고 있다. 현악육중주는 아름다운 선율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브람스의 동일 장르 작품에 필적할 만큼 매력적이다. 러시아민요와 모차르트의 선율을 차용한 포푸리도 흥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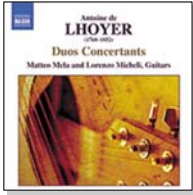


Naxos 8.557251

복스테후데:
성악작품집 Vol.1

엠마 커크비(소프라노) / 존 할러웨이 & 만프레드 크레머(바이올린) /
압 테르 린덴(비올라 다 감바) /
라스 울릭 모르텐센(하프시코드 & 오르간)

2005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복스테후데 소나타 연작에 이어 홀러웨이/린덴/모르텐센 트리오가 선사하는 또 하나의 블록버스터급 음반. 사발의 든든한 음악동료로 익숙한 바이올리니스트 만프레드 크레머와 더불어 바로크 소프라노의 대명사와도 같은 이름인 엠마 커크비가 함께 하였다. 아직 미성을 간직하던 시절인 1996년의 녹음으로, 덴마크 다카포 레이블을 통해 발매되었던 음원을 재발매한 것이다.



Naxos 8.570146

로이어: 두 대의 기타를 위한 듀오 콘체르탄테

마테오 멜라 & 로렌초 미첼리 (기타)

앙트완 드 로이어(1768-1852)는 19세기의 가장 뛰어난 기타음악 작곡가의 한 사람이자, 교사, 연주가, 그리고 직업군인이었다. 그의 대표작인 두 대의 기타를 위한 콘체르탄테는 모차르트를 연상케 하는 경쾌한 악상을 통해 기타의 독특한 매력을 한껏 뽐내게끔 의도된 작품들로, 두 대의 기타가 주고받는 긴밀한 호흡과 두 연주자의 고른 기량이 연주의 성패를 결정짓는다.



Naxos 8.559322

루오: 체임버 콘체르토 사이클

인터내셔널 컨템포러리 앙상블 / 후앙 루오

중국출신의 미국작곡가 후앙 루오(1976년생)는 동양과 서양의 양면성을 공유한 독특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는 젊은 기대주다. 이 체임버 콘체르토 사이클은 2003년 컬럼비아 대학의 밀러극장에서 펼쳐졌던 작곡가 포트레이트 콘서트에서 초연된 작품으로 뉴욕 타임즈의 음악평론가 알란 코친은 2번 콘체르토를 'Top 10 classical moments of 2003' 의 하나로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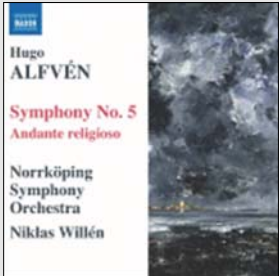


Naxos 8.570165

로렌치노 델 리우토: 르네상스 류트 음악들

마르코 페시 (lute)

델 리우토(1552-90)는 서양음악사에 등장하는 가장 위대한 류트 비르투오조의 한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창작곡들 외에도 당대의 유명한 작곡가들의 다른 장르의 음악들을 즐겨 류트용으로 편곡하였다. 본 음반에는 로렌치노의 창작곡들과 함께 팔레스트리나, 라수스, 데 로레 등의 성악곡들을 류트로 편곡한 작품들이 수록되었다.



Naxos 8.557612

알프벤: 교향곡 5번, 안단테 렐리지오소

노르코핑 심포니 오케스트라 / 니클라스 빌렌

낙소스의 알프벤 교향곡 시리즈의 완결작. 후고 알프벤은 베르발트에 뒤를 잇는 여러 스웨덴 작곡가들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이름이다. 그의 교향곡 5번은 1942년에 작수하여 1953년에서야 완성된 회심의 노작으로 작곡가의 초기작인 발레 '마운틴 킹'의 선율들을 토대로 만든 작품이다. '안단테 렐리지오소'는 자신의 계시록 칸타타를 하프, 첼레스타, 현악합주 편성으로 편곡한 것으로, 두 중심악기가 만들어내는 투명한 음색이 매우 특징적인 작품이다.



Naxos 8.570010

D 스카를라티: 키보드소나타 Vol.8

이소연(피아노)

스카를라티가 남긴 555편의 키보드소나타를 완결하려는 낙소스의 여덟 번째 음반. 기교적인 화려함과 남국의 서정성을 겸비한 13편의 소나타를 수록하였다. 2004년 콘서트 아티스트 길드 콩쿠르와 클리블랜드 콩쿠르를 연거푸 석권하면서 미국음악계의 갈채를 받았던 자랑스러운 우리 피아니스트 이소연의 낙소스 데뷔 레코딩.



Naxos 8.570181

라이넵케: 클라리넷을 위한 작품들 (클라리넷 트리오, 클라리넷소나타, 환상소품 외)

올리비에르 다르트베유(c) / 피에르 앙리 슈렐(va) / 장 실(pf)

칼 라이넵케는 지휘자, 피아니스트, 명교사로 당대에 유명세를 떨쳤던 인물이다. 그는 작곡가로서도 다수의 매력적인 작품들을 남겼다. 초기 작품인 환상소품에서부터 80대에 완성한 클라리넷트리오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친한 동료들이었던 슈만과 멘델스존을 연상케 하는 낭만시대의 우아함과 서정성을 가득 머금고 있다. 클라리넷 애호가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Naxos 8.570213

멘델스존: 무언가 발췌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편곡)

악셀 슈트라우스(바이올린) / 코드 가벤(피아노)

무언가 연작은 멘델스존을 대표하는 피아노작품이다. 간결한 구성과 친근한 선율이 돋보이는 이들 작품들은 피아노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편곡 연주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친숙하다. 본 음반에는 19세기 후반에 활약했던 라이프치히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헤르만이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해 편곡한 버전에서 22곡을 발췌 수록하였다. 1998년 에네스쿠 콩쿠르에서 2등을 차지했던 독일의 신예 악셀 슈트라우스와 DG의 명프로듀서이자 지휘자로도 활약했던 코드 가벤이 함께 연주를 맡았다.



Naxos 8.559265

울프: 미디안에서 온 사람, 바이올린 소나타

카메론 그랜트 & 제임스 윈(피아노 듀오) / 조자 플리차니스(바이올린) / 개릭 올슨(피아노)

독일 출신의 미국 작곡가 스테판 울프(1902-72)는 나치를 피해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한 뒤 예루살렘 음악원에서 음악이론을 가르치며 창작활동을 겸했었다. 당시 유럽의 문화적배경과 중동의 이국적인 선율이 결합된 독특한 작품을 다수 남겼는데 그 중 하나가 '미디안에서 온 사람'이다. 바이올린소나타는 미국적을 취했던 직후의 작품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자유를 표현한 첫 작품이라고 자평하였다.



Naxos 8.557891

레거: 오르간 작품집 Vol.7

에드가 크랍 (파소 대성당 오르간)

막스 레거는 바흐 이후 독일 오르간 음악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으로 손꼽힌다. 이번 신보에 수록된 심포닉 판타지와 푸가 Op.57은 작곡가가 오르간을 위해 완성한 작품들 중에서 가장 기교적으로 난곡으로 평가된다. 함께 수록된 7개의 오르간 소품 Op.145는 교회력의 여러 기일들을 위해 완성한 작품들을 모은 것으로 1차대전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성격의 작품이다.



Naxos 8.557918

마르티누: 피아노작품집 Vol.2 (꼭두각시 1-3권, 정원의 봄, 천국의 새와 나비 외)

조르조 쿠클(피아노)

마르티누는 6곡의 교향곡과 대합창곡 <길가메쉬>로 잘 알려진 체코출신의 작곡가다. 그의 피아노곡은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고 있지만, 본 음반에 수록된 <꼭두각시> 시리즈와 같이 독특한 개성과 세련된 악상을 지닌 작품들이 다수 존재한다. 체코민요, 프랑스 인상주의, 미국의 재즈 등이 교묘하게 혼합된 작곡가의 독특한 음악세계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Naxos 8.559285



Naxos 8.570113-14



Naxos 8.557076



Naxos 8.570019



Naxos 8.660203-04

아담스: 피아노작품전집 (프리지아의 문들, 아메리칸 버서크, 중국의 문들, 할렐루야 정션)

랄프 판 라트(피아노)

미국 포스트미니멀리즘의 선두주자로 각광받고 있는 존 아담스의 피아노작품집. '문들' (Gates) 연작은 미니멀리즘 스타일의 작품들로 간주되지만, 라이히나 글래스의 작품들에 비해 보다 조성음악체계에 충실하면서도 표정이 살아있는 작품들이다. '할렐루야 정션'은 작곡가의 재즈와 대중음악에 대한 사랑을 담은 작품이다. 최신작인 '아메리칸 버서크'는 낸카로우의 부기우기 스타일을 연상케 하는 광포한 작품이다.

헨델: 오라토리오 <토비트>

솔로이스츠 / 웅에 칸토라이 / 프랑크푸르트 바로크 오케스트라 / 요아힘 카를로스 마르티니

<토비트>는 헨델의 오리지널 작품이 아니고, 존 스미스라는 이가 1764년에 헨델의 여러 작품에서 따온 선율과 자신이 창작한 레지타티보를 조합하여 완성한 일종의 피스티치오 작품이다. 작품의 내용은 외경 중 하나인 토비트(Book of Tobias)에서 따온 것으로, 토비트의 박해와 고통 그리고 역경의 종말과 함께 아들 토비아스와 사라의 행복한 결혼 등이 주 내용을 이룬다.

슈만: 어린이를 위한 가곡집 Op.79, 리트와 노래 Op.27

시빌라 루벤스(Sop) / 슈테파니 이라니(MS) / 토마스 E 바우어(Br) / 우타 히엘서(pf)

1840년은 슈만에게 있어서 '리트의 해'와 같았다. 클라라를 향한 사랑과 다가올 결혼에 대한 희망을 무려 140여 편의 아름다운 가곡을 통해 표현했던 것이다. 슈만 가곡 시리즈의 세 번째 음반인 이번 신보에는 어린이를 위한 가곡집과 리트와 노래 Op.27을 함께 수록하였다. 바로크 레퍼토리에서 두각을 드러내었던 아름다운 미성의 소유자 시빌라 루벤스가 나크스를 통해 첫 인사를 드린다.

시벨리우스: 가곡집 Vol. 1

한누 유르무(테너) / 유오니 소메로(피아노)

시벨리우스는 100여 편 가량의 가곡을 남겼다. 대부분은 스웨덴어 가사이고, 소수의 핀란드어와 독일어 가사의 작품이 남아있다. 그의 가곡들은 교향곡과 관현악곡의 위용에 가려져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나, 북구 특유의 어두운 색조와 생동감 있는 개성 그리고 심도 깊은 멜랑콜리를 담은 매력적인 작품들이 많다.

로시니: 바빌론의 키루스 (Ciro in Babilonia)

솔로이스츠 / ARS 브뤼네시스 실내합창단 / 뷔템베르크 필하모닉 / 안토니노 포글리아니

2004년 7월 로시니 인 빌트바트 페스티벌 실행. 구약에 등장하는 바빌론의 폭군 벨사자의 폭정과 패망을 내용으로 한 <바빌론의 키루스>는 로시니가 1812년에 완성한 일종의 종교극이다. 바빌론왕 벨사자르와 페르시아왕 키루스의 정패를 다룬 오페라답게 장중한 군대장면과 장송행진곡 등의 스펙터클한 볼거리들이 많으며, 복잡한 스토리 끝에 갑작스런 해피엔딩은 바로크 오페라의 구습을 답습하고 있다.

Naxos Historical, Jazz Lege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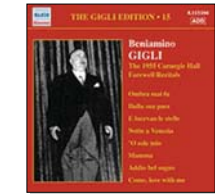
Naxos 8.111246



Naxos 8.111235-36



Naxos 8.111245



Naxos 8.111104



Naxos 8.120830

바흐: 바이올린협주곡 BWV1042,
모차르트: 바이올린협주곡 4번, 멘델스존: 바이올린협주곡

다비트 오이스트라흐(vn) /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 유진 오먼디

러시아의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 오이스트라흐를 이제 나크스 히스토리컬을 통해 만난다. 오이스트라흐의 최전성기였던 1955년 미국에서 남긴 녹음으로 오먼디가 이끄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다. 멘델스존 협주곡은 그가 남긴 두 개의 공식녹음 중에서 나중의 것으로 오이스트라흐 특유의 아름다운 서정성이 잘 살아난 명연이다. 바흐와 모차르트는 공식녹음들 중 가장 시기적으로 앞선 기록들이다.

들리브: 라크메 (1952년 녹음)

마도 로뱅(sop) / 리베로 데 루카(te) / 파리 오페라 코미크 / 조르주 세바스티앙

20세기 중반 라크메로 일세를 풍미했던 프랑스의 위대한 소프라노 마도 로뱅, 반세기가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동곡 최고의 녹음으로 손꼽히는 1952년 텍카 레코딩이 워드 마스톤의 뛰어난 복각을 통해 새 생명을 얻었다. 당시 파리 오페라계를 이끌던 헝가리 출신의 거장 조르주 세바스티앙의 뛰어난 해석과 또 한명의 불세출의 성악가 리베로 데 루카의 낭랑한 미성이 이 녹음을 더욱 위대한 것으로 만들었다.

쇼팽: 발라드 1-4번, 야상곡 2, 4, 5, 7, 15, 16번

알프레드 코르토 (pf)

낙소스의 코르토 78회전판 복각시리즈의 마지막 음반. 1929년 녹음인 발라드 전곡과 더불어 1950년 전후에 녹음된 야상곡의 일부를 함께 수록하였다. 발라드는 코르토 특유의 열정과 감성이 잘 묻어나온 연주로, 1933년의 리메이크 녹음에 비해 더 뛰어난 평가를 받아왔었다. 야상곡 2번은 1929년과 1949년의 녹음을 함께 수록함으로써 세월에 따른 연주자의 시각변화를 체험하게 배려하였다.

질리 에디션 Vol.15 (1955년 카네기홀 고별 리사이틀)

낙소스 질리 에디션의 마지막 음반이자 질리의 사망 50주기를 기리는 음반.

1955년 카네기홀에서 있었던 고별 리사이틀을 마크 오버트-손이 멋지게 복각하였다. 전성기가 한참 지났음에도 자신의 장기와도 같은 매력적인 메사 보체를 끝까지 지키고 있던 질리의 마지막 모습을 확실히 하게 된다. '오 낙원이여', '아마릴리', '옴브라 마이 푸', '별은 빛나건만' 등의 고급의 명곡과 더불어 '오 솔레미오', '맘마'와 같은 친근한 곡들까지 위대한 테너의 마지막 순간이 더욱 감동적으로 다가온다.

Easy to Remember (Songs of Richard Rodgers & Lorenz Hart)

My Heart Stood Still / Thou Swell / I've Got Five Dollars / The Lady Is A Tramp / Blue Moon / Ev'rything I've Got / Evergreen: Dancing On The Ceiling / Manhattan / Mountain Greenery / You Are Too Beautiful / Isn't It Romantic / It's Easy To Remember / All Points West / Slaughter On Tenth Avenue / Where's That Rainbow / You Took Advantage Of Me / Ten Cents A Dance / The Blue Room / I Didn't Know What Time It Was



Naxos 8.22531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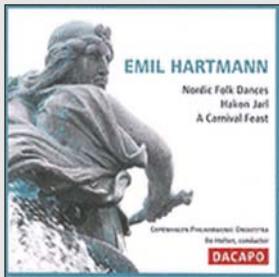
파시우스: 카를 왕의 사냥

여러 가수들 / 포리 오페라 합창단 / 포리 신포니에타 / 아리 라실라이넨

프레드릭 파시우스(1809-1891)는 핀란드 음악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인물로 시벨리우스 이전 이 나라 음악계를 대표했던 작곡가다. 오페라 '카를 왕의 사냥'은 1852년 헬싱키에서 초연된 작품. 당시 지배국이던 스웨덴의 언어로 초연되었으나 지금은 핀란드어로 번역되어서 자주 상연된다. 작품은 베버의 '마탄의 사수'를 모델로 삼았는데, 특히 사냥꾼들의 합창장면은 상당히 유사하다.



DACAPO



Dacapo 8.226041

하르트만:

노르딕 민속 춤곡, 교향시 <하콘 야를>, 카니발 축제 모음곡

코펜하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보 홀텐

에밀 하르트만(1836-98)은 19세기 후반 덴마크 음악계를 대표하는 작곡가였던 J.P.E 하르트만의 아들이다. 아버지의 큰 명성에 가려져 과소평가되고 있지만, 이 작곡가의 작품들 역시 시벨리우스나 닐센에 버금가는 북구 특유의 감성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북구의 향토색을 드러내는 '노르딕 춤곡', 바로크 춤곡 모음곡을 연상케하는 구성으로 축제의 흥겨움을 나타낸 '카니발 축제', 절묘한 오케스트레이션이 돋보이는 '하콘 야를' 등 작곡가의 대표적인 관현악곡들을 수록하였다.



Dacapo 8.226029

엔센: 2대의 플루트를 위한 4개의 이중주

루네 모스트 & 마르첼로 바르보자(f)

닐스 페테르 엔센(1802-46)은 장님이었지만, 뛰어난 플루트 비르투오조와 오르가니스트로 성공했던 입지전적 인물이다. 이 음반에 수록된 플루트 이중주들은 연주자로서의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완성된 것으로 플루트라는 악기의 아름다운 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배려된 작품들이다. 플루트가 왜 로맨틱한 악기의 대명사인지 다시금 확연케 하는 매력적인 음반. 플루트 전공자들에게 적극 추천한다.



Dacapo 6.220526 Hybrid-SACD

로맨틱 트럼본 협주곡 (홀름보에, 힐드고르, 요르겐센, 그론달)

에스페르 울(tb) / 덴마크 국립 교향악단 / 토마스 다우스고르 & 헨릭 반 크리스텐센

트럼본은 20세기 덴마크 음악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한 악기다. 오케스트라의 저음파트를 더욱 풍요롭고 박력 있게 꾸미는 역할 뿐만 아니라, 솔로 악기로서도 많은 작곡가들의 사랑을 받았다. 본 음반은 북구의 근현대 작곡가 4사람이 완성한 트럼본과 관현악을 위한 매력적인 작품들을 담았는데, 요르겐센의 로망스와 같은 곡에서는 이 악기의 감춰진 서정미를 발견하게 된다.

Classictoday 10/10



Dacapo 6.220518 Hybrid-SACD

닐센 : 관현악작품집

덴마크 국립 교향악단 / 토마스 다우스고르

그리고, 시벨리우스와 더불어 후기낭만시대의 북유럽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인 카를 닐센. 6개의 교향곡 외에도 오페라나 극부수음악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 본 음반에는 작곡가의 대표적인 관현악 소품들이 망라되었다. 두 걸작 오페라 '가면무도회'와 '사울과 다비드'의 삽입곡들 외에도 랩소디 서곡, '판과 시링크스', '헬리오스' 서곡, '큐피드와 시인' 서곡 등등 작곡가의 예리한 감각과 유머, 세련된 오케스트레이션을 담은 매력적인 작품들이 가득하다.



OUR 8.226900

시에스타 (기타와 리코더를 위한 라틴 클래식)

미칼라 페트리 (recorder) & 라스 한니발 (guitar)

세계적인 리코더 연주자 미칼라 페트리와 기타리스트 라스 한니발이 들려주는 남국의 정열, 피아졸라의 '탱고의 역사', 카스텔누오보 테데스코의 플루트와 기타를 위한 소나티나, 빌라로보스의 브라질 풍의 바흐 5번, 라벨의 하바네라 풍의 소품, 이베르의 막간(Entracte) 등등 라틴 계열 작곡가들의 이국적인 작품들을 리코더와 기타의 청명한 울림으로 표현해내었다. 본 음반은 페트리-한니발 부부가 설립한 독립레이블인 OUR Recordings의 출범을 알리는 뜻 깊은 음반이기도 하다.



Musikproduktion

Dabringhaus und Grimm[MD&G]



MDG 314 1438-2

복스테후데: 오르간 작품 전집

7장을 4장 가격에...

하랄트 포겔 (오르간)

바흐 오르간 작품의 직접적인 토양을 제공했던 북독일 오르간 악파의 거장 디트리히 복스테후데의 오르간작품 전곡을 10여개의 독일 유명 오르간을 동원하여 녹음한 하랄트 포겔의 역작. 이미 낱장 발매를 통해 디아파송, 팡파르, 포노포럼 등의 유수의 전문 음반비평지들의 찬사를 얻었던 이 노작을 보다 경제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연주자가 직접 꼼꼼히 작성한 164 페이지 분량의 두툽한 내지가 함께 제공됩니다. 오르간학도들을 위한 최고의 지침서.



MDG 341 1305-2

모차르트: 건반작품 전집 Vol. 5 (소나타 K310, 330, 9번주곡 K264 외)

지그베르트 람페 (하프시코드, 클라비코드, 포르테피아노)

포르테피아노, 클라비코드, 하프시코드의 세 종류의 옛 건반악기들을 동원하여 모차르트의 건반 작품 전체를 탐험 중인 독일의 중견 건반주자 지그베르트 람페, 이번 다섯 번째 음반에는 다섯 살 때 작곡한 이 천재작곡가의 가장 초기작과 성장 이후 파리어행 중과 귀향이후에 작곡한 작품들을 함께 수록하였다.

'심원한 음악적 깊이를 담은 연주' (FonoForum), '대단히 감탄할만한 연주' (Klassik.com)

Also Available

341 1301-2
모차르트 건반작품 전집 1집 - 환상곡 K475, 소나타 K457, K283 테마와 다섯 변주 K54, 미뉴에트 K2

341 1302-2
모차르트 건반작품 전집 2집 - 소나타 K576, 12, 332, 570, 미뉴에트 K151, 15k

341 1303-2
모차르트 건반작품 전집 3집 - 소나타 K311 & K309, 아다지오 K356, 12 변주곡 K179 & K354

341 1304-2
모차르트 건반작품 전집 4집 - 소나타 K333, K284, 전주곡과 푸가 K394, 건반소품 K626 외



MDG 603 1423-2

오보에 솔로(JS 바흐, 실베스트리니, CPE 바흐, 피아졸라)

곽연희 (오보에)

오보에의 관능적인 비음의 매력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음반.

단 현대의 오보에만으로도 이토록 흥미진진한 음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바흐 부자가 플루트 솔로를 위해 완성한 작품들이 오보에의 독특한 음색을 통해 새로운 느낌으로 재창조되었으며, 오보에 솔로를 위한 피아졸라의 탱고-에튀드와 오보에주자 출신의 작곡가 실베스트리니의 여섯 개의 에튀드 역시 단순한 연습곡 이상의 음악적 감동을 안겨줄 것이다. 연주자 곽연희는 한양대음대를 졸업하였고, 현재 뮌헨 방송교향악단에 재직 중인 재원. 오보에연주자들의 필청 음반.



MDG 303 1361-2

프로이센의 루이스 페르디난트 공: 피아노트리오 Vol.2 (피아노트리오 Op3, 피아노사중주 Op.6)

트리오 파르나수스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의 조카인 페르디난트 공은 아마추어 작곡가와 피아니스트로도 상당한 음악적 재능을 보여주었다. 그는 초기 낭만 스타일의 아기자기한 실내악작품들을 다수 남겼는데, 자신의 음악스승이었던 두셴의 영향이 도처에서 발견된다. 독일 실내악의 명가 MDG의 핵심 앙상블인 트리오 파르나수스의 뛰어난 연주가 새로운 작곡가를 만나는 반가움을 배가시킨다.

Also Available

303 1347-2

프로이센의 루이스 페르디난트 공: 피아노트리오 Op.2, 10

트리오 파르나수스

High Fidelity Online 추천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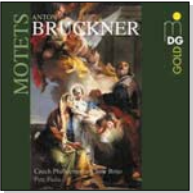


MDG 321 0339-2

빌라-로보스: 첼로협주곡 2번, 첼로와 관현악을 위한 그랜드콘체르토

올리히 슈미트(첼로) / 북서독일 필하모니 / 도미니크 로겐

20세기 라틴 클래식을 대표하는 브라질의 거목 빌라-로보스. 그의 탄생 120주년 기념음반. 작곡가가 남긴 두 첼로협주곡을 모은 이 음반은 1989년 LP로 출시된 음원으로, 이번에 처음 CD포맷으로 재발매된 것이다. LP출시 당시 포노포럼과 팜파르 등에서 절찬을 받았던 명연이며, 오디오파일적인 장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첫 첼로협주곡은 브라질 민속음악적인 특징이 두드러지는 반면, 그랜드 콘체르토는 프랑스 인상주의의 영향이 배어나오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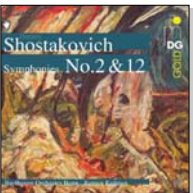
MDG 322 1422-2

Hybrid-SACD 922 1422-6

브루크너: 모테트

브르노 체코 필하모닉 합창단 / 페트르 피알라

11개의 거대한 규모의 교향곡들로 대변되는 브루크너이지만, 그의 또다른 매력을 맛볼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중 교향장곡이다. 3편의 미사, 테데움이 출중하며, 아카펠라합창을 위해 작곡한 다수의 모테트들 역시 간과하기 쉬운 이 작곡가의 섬세함을 보여준다. Ave Maria, Locus iste, Pange lingua 등이 탁월하며, 다양한 조성으로 제시되는 Tantum Ergo 연작 다섯 편도 흥미롭다. 브루노 체코 필하모닉합창단은 1990년에 설립된 비교적 신생단체지만, 중부유럽의 온후한 합창 음악의 전통을 훌륭히 계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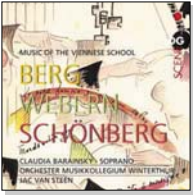
MDG 337 1206-2

Hybrid-SACD 937 1206-6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2번 <10월 혁명을 위해>, 교향곡 12번 <1917년>

브루노 체코 필하모닉합창단 / 본 베토벤 오케스트라 / 로만 코프만

거장 로만 코프만의 쇼스타코비치 시리즈가 이제 반환점을 지났다. 이번 신보에는 작곡가의 15교향곡 중 가장 소비에트 정신에 투철한 작품 2편을 수록하였다. 10월 혁명 10주년 기념작품인 교향곡 2번은 합창을 수반하는 전형적인 선동 작품. 스탈린 사후인 1961년에 작곡된 교향곡 12번은 과거만큼 정치적인 압박을 받지 않던 시대였음에도 소비에트주의자의 사명감으로 완성한 작품. 최고의 음향으로 쇼스타코비치 교향곡의 다이내믹을 만끽하게 되는 음반.



MDG 601 1425-2

Hybrid-SACD 901 1425-6

베르크: 서정모음곡, 베베른: 관현악변주곡, 쇤베르크: 현악사중주 2번(관현악편곡)

클라우디아 바라인스키(sop) / 오케스터 무지콜레기움 빈터투르 / 악 판 스텐

20세기 음악에 큰 획을 그었던 신비악과 3인방의 대표곡들을 한 음반에 묶었다. 쇤베르크의 현악사중주 2번은 아직 작곡가가 조성체계 안에 남아있던 시절에 완성한 작품. 당시 유행가였던 '당신 사랑하는 아우구스틴'의 선율을 차용하였다. 서정모음곡은 베르크가 남긴 인기작의 하나로 아내와의 아름다운 추억이 깃든 매혹적인 작품이다. 베베른의 관현악변주곡 역시 이 작곡가의 대표적인 관현악 걸작이다. 현대음악에 일가견이 있는 지휘자 악 판 스텐의 재능을 확인케 하는 음반.



MDG 304 1439-2

마르티누: 실내악작품집 (6중주, 9중주, 4개의 마드리갈, 닭의 리뷰)

앙상블 빌라 무지카

마르티누는 자신의 고향 보헤미아의 음악에 대서양 건너 유입된 재즈를 도입하기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여러 희귀 실내악 작품들을 발굴하여 평단의 큰 지지를 받았던 앙상블 빌라 무지카가 마르티누의 실내악에 도전하였다. 현과 목관이 적절히 조화된 9중주, 다섯 목관과 피아노 조화를 위한 6중주, 파리 체제중 가벼운 마음으로 작곡한 재즈 모음곡 '닭의 리뷰' (La revue de cuisine), 의고적인 취향을 보여주는 4개의 마드리갈 등 흥미진진한 작품들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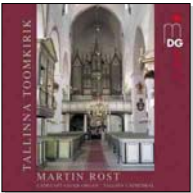


MDG 603 1436-2

판 델덴: 현악사중주 전집 (1-3번, 현 5부를 위한 파사칼리아)

유타레흐스 현악사중주단

렉스 판 델덴은 20세기 중반 암스테르담 음악계에서 다재다능함과 넓은 인맥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주요 인물이었다. 이미 다양한 편성의 악기들을 위한 실내악 작품들(603 1317)이 선보인 바 있으며, 이번 신보에는 정통적인 현악사중주 포맷의 작품들이 수록되었다. 글라주노프 현악사중주 시리즈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네덜란드의 실력과 실내악단인 유타레흐트 사중주단이 자국의 생소한 작곡가를 보다 친절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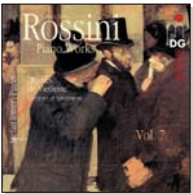


MDG 606 1432-2

리스트, 브람스, 레거, 토비아스 등의 오르간 작품집

마틴 로스트 (탈린 대성당 오르간)

전 세계 유명오르간을 순회 중인 MDG의 오르간순례시리즈의 신보.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에 위치하는 탈린 대성당 오르간을 선택하였다. 1878년에 설립되어 1919년에 근대화개장을 끝낸 이 오르간은 아름다운 사운드로 로만틱오르간의 대명사로 유명한 악기다. 연주자 로스트는 악기의 특성에 맞추어 낭만시대의 오르간 작품들을 엄선하였다.



MDG 618 1426-2

로시니: 피아노 작품집 Vol.7

슈테판 이르머 (슈타인웨이피아노 1901년 모델)

슈테판 이르머의 로시니 피아노작품 시리즈의 일곱 번째 음반. <Les Peches de vieillesse>는 작곡가가 만년의 20년 동안 파리에서 작곡한 성악곡, 기악곡, 세속적 또는 종교적인 작품을 망라한 방대한 작품집이다. 신보는 그 중에서 14편의 다양한 성격의 피아노소품들을 수록하였다. 저마다 재미있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이 소품들은 작곡가의 넉넉한 유머감각을 대변한다. 1901년에 제작된 슈타인웨이 피아노의 세월을 잊은 듯한 청명한 소리가 매력적이다.



MDG 613 1428-2

필립 글래스: 오르간을 위한 춤곡, 삼부작 소나타

슈테판 솔라이어마허 (오르간 & 피아노)

현대음악 전문 피아니스트 슈테판 솔라이어마허가 미니멀리즘의 대가 필립 글래스의 건반을 위한 작품들에 도전하였다. 인도음악의 영향이 드러나는 이국적인 선율의 흐름과 아프리카 음악을 통해 체득했던 리듬 감각이 글래스 특유의 무한반복을 통해 엮어진 이 작품들은 글래스 음악의 요체를 확인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특히 삼부작 소나타는 작곡가의 이름을 세계적으로 알린 오페라 삼부작(해변의 아인슈타인, 사티아그라하, 아크나텐)의 선율을 바탕으로 완성한 3개의 악장으로 구성된 작품으로 글래스 베스트 샘플러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MDG 645 1403-2

넌카로우: 플레이어 피아노를 위한 작품 2집
비젠도르퍼 그랜드 피아노 with 암피코 플레이어 피아노 메카니즘
구멍 뚫린 종이테이프를 이용한 자동악기인 플레이어 피아노. 미국의 괴짜 작곡가 넌카로우는 템포랄 푸가라는 자신의 독창적인 대위음악을 위해 이 악기의 기계적인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빠른 템포와 복잡한 리듬 행을 이 기계장치를 활용하여 재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난 1집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이는 이 음반 역시도 작곡가가 직접 천공한 종이테이프와 작곡가의 소장품이었던 비젠도르퍼 플레이어 피아노를 사용하여 녹음되었다. 지난 1집은 그라모폰 에디터스 초이스, Classicstoday 10/10, FonoForum 만점, Dagens Nyheter 올해의 음반 등 유수의 음반 전문가들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받았다.

Also Available

645 1401-2
넌카로우
플레이어 피아노를 위한 작품 1집



MDG 937 1366-6 3 Hybrid-SACD

리스트: 오라토리오 <크리스투스>
프란치스카 히르첼(sop) / 비르기트 뎀머트(alt) / 도날드 카슈(te) / 랄프 루카스(bar) / 체코필하모닉 합창단 / 본 베토벤 오케스트라 / 로만 코프만
젊어서 유럽 일대를 호령하면서 화려한 비르투오조의 삶을 살았던 리스트는 만년에 가톨릭에 귀의하여 사제로서 생을 마감하였다. 예수의 일생을 탄생, 공생애, 수난과 부활 세 단락으로 음악으로 표현한 대작 오라토리오 <크리스투스>는 이러한 작곡가의 신앙심을 정성껏 음악으로 표현해낸 걸작이다. 대편성 관현악과 합창, 오르간이 어우러지는 이 스펙터클한 작품이 SACD의 멀티채널을 통해 한층 생생하게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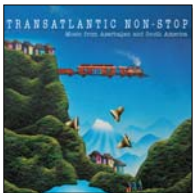
www.kkv.no

KKV(Kirkelig Kulturverks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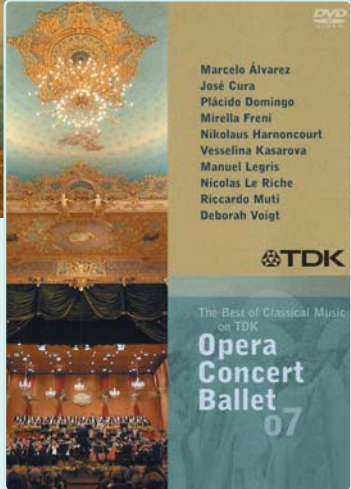
FXCD 315

카밀라 수산 하우크: Noen Ganger Blatt(섬타임스 블루)
히르켈리히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카밀라 수산 하우크의 앨범은 시와 매혹적인 재즈 선율로 가득한 음반이다. 오랜 시간 재능있는 아티스트들과 활동해온 그녀의 실력이 유감없이 발휘된 것으로, 음반의 선율은 모두 카밀라가 썼고, 가사, 즉 시편들 가운데 일부도 그녀가 마련했다. '집으로 가는 길', '놀라움', '안단테', '아파트', '한밤중에', '안녕', '비', '밤에 깨어나', '유령', '바람의 노래', '아침', '날 사랑하세요?' 참신한 재즈 풍의 곡들이 감동을 준다.



FXCD 316

대서양 너머 논스톱
에콰도르 칠레 출신의 알티플라노와 아제르바이잔 출신의 시야부시 케리미가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폭발적인 음반을 만든 것인데, 소재목 그대로 아제르바이잔과 남 아메리카의 음악을 담고 있다. 보컬, 기타, 팬 플루트, 삼포니아, 퍼커션, 베이스 기타 등 다양한 악기들이 내는 음색도 매혹적이고, 적도의 살사 분위기와 브라질 삼바 트위스트의 절묘한 조화, 그리고 매혹적인 동양의 미감이 듣는 이의 상상력을 무한 자극한다.



TDK DVWW-OPBEST4

The Best of Classical Music on TDK

Opera Concert Ballet 07

지난 시즌 발매 분 감동의 장면 엄선
2007년 TDK 카탈로그가 함께 들어있다

TDK 클래식의 베스트 장면 오페라 & 콘서트 & 발레 07

영상 컴필레이션의 획기적인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TDK의 하이라이트 장면 모음 제 7편. 워낙 뛰어난 화질과 음향을 담은 고품질의 DVD인데다 현역 최고 음악가들의 생생한 모습을 담고 있으며, 또 특별히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 시리즈는 1편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왔다. 이번 아이템도 카운터테너 브라이언 아사와, 지휘자 세미온 비쉬코프, 쿠르트 마주어 등 현재 활동 중인 최고의 음악가들을 만나볼 수 있다. 베르디 <라 트리아비아>의 '죽배의 노래'를 시작으로 모차르트 <코지 판 투테> 중에서 '바람아 잠잠해져라', 슈베르트 미완성 교향곡 등 1시간 30분 동안 폭 빠져서 보게 만든다.



www.tdk-music.com

아일랜드 뉴 에이지의 거목

필 쿨터 베스트 컬렉션 Phil Coulter

아일랜드의 국민 아티스트

작곡가 겸 연주가인 필 쿨터는 북아일랜드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큰 도시이며, 명곡 '런던데리'로도 잘 알려진 데리(Derry)에서 태어났다. 쿨터의 아버지는 경찰관이었지만, 음악을 무척 좋아해서 그의 집안에는 늘 음악적인 분위기로 가득했다고 한다. 어머니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아버지는 옆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그의 가정의 음악환경은 어린 쿨터의 가슴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쿨터는 아버지와 즐거운 음악생활을 하던 어머니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치던 업라이트 피아노(Challen Piano)는 어릴 때 그의 집에서 가장 중요한 가구 중의 하나였다고 회고한다. 성장기에 음악이 없는 삶을 살아본 시간이 거의 없었던 그였다.

성년이 되어 필 쿨터는 벨파스트 쿨 대학에 진학했지만, 학업보다는 음악에 열중해 친구들과 밴드를 조직하고 록앤롤 음악을 연주하기를 즐겼다. 얼마 후 그는 '랙 데이(Rag Day)' 두 곡을 녹음하여 주위에 자랑으로 내놓았고, 친구들과 글리 클럽(Glee Club)이라는 것을 조직해서 적극적인 음악 활동에 돌입했다. 벨파스트 극장 근처 비틀즈가 공연하고 있던 저녁에 800명의 학생들 앞에서 피아노 연주를 했던 경험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 멋진 추억이라고 말한다.

1960년대 후반에는 스코틀랜드의 뛰어난 재능의 작곡가 빌 마틴(Bill Martin)과 유대를 맺고 활동했다. 두 사람의 작품은 금세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겼다. 1967년 샌디 쇼의 유러비전 송 콘테스트 우승 곡인 'Puppet on a String'을 썼던 그들은 이 노래가 빅 히트하자 순식간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이듬해에는 클리프 리처드(Clipf Richard)의 노래 '축하합니다(Congratulations)'로 또 하나의 커다란 성공을 거머쥐었다. 두 사람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쿨터와 마틴의 공동작업은 15년 이상이나 지속되었다. 둘의 콤비 활동기간에 써낸 작품들은 다나(Dana), 리처드 해리스(Richard Harris),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의 손에까지(My Boy'란 노래) 건너갔고, 베이 시티 롤러스(Bay City Rollers) 그룹에게 거의 모든 음악을 써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필 쿨터와 빌 마틴이었다. 1967년에는 시드 데일(Syd Dale), 조니 피어슨(Johnny Pearson), 조니 혹스워스(Johnny Hawksworth)와 함께 그 유명한 스파이더 맨 카툰의 부수음악을 만들기도 했었다.

한동안 필 쿨터는 밤무대에서 활동했다. 그때 만난 친구들은 그에게 '쿨 필터(Cool Filter)'라는 별명을 만들어준 밴 모리슨을 포함하여, 톰 존스, 제리 리 루이스 그리고 롤링 스톤즈 같은 오늘날에는 너무도 유명한 아티스트들이다. 한편 필 쿨터는 스코틀랜드의 연주가인 빌리 코놀리(Billy Connolly)와도 교류했었는데, 코놀리는 필 쿨터 음악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코놀리를 만난 이후 1970년대를 통해 쿨터는 어린 시절의 꿈과 낭만 그리고 추억이 담긴 조국 땅의 음악, 즉 아일랜드 노래들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필 쿨터의 꿈틀거리는 재능은 그를 작곡가, 연주가뿐만 아니라 음반 프로듀서로서도 활동하게 만들었다. 그가 낸 괄목할만한 음반은 현대 아일랜드 음악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Planxty의 앨범 세 가지다. 이 앨범들을 통해 보여준 쿨터의 프로듀싱 능력은 관련 스태프나 전문 프로듀서들을 놀라게 했다. 그가 만든 음반들이 비록 Planxty의 빅히트 앨범 목록에는 들지 못했지만, 그것들은 뛰어난 음향기술과 음악적인 안목으로 만든 매우 높은 수준의 결과물들이었다.

약 20년 전쯤의 그의 명반들만을 경험해왔던 요즘 애호가들에게 필 쿨터의 이미지는 뉴 에이지 피아니스트로서의 그것이 대부분이다. 사실 그렇다. 그가 솔로를 선언하고 활동하기 시작했던 것은 아일랜드 선율을 기초로 한 앨범, 클래식 트랜

퀼리티(Classic Tranquility)란 독주 기악 앨범을 냈던 시점, 즉 1984년부터였다. 이 최초의 솔로 앨범은 출시되자마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연이어 나온 고요한 바다(Sea of Tranquility)는 전작보다 훨씬 더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며 높은 판매고를 올렸다. 이 앨범은 아일랜드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음반이라는 기록까지 가지고 있다. 1995년에 필 쿨터는 아일랜드 럭비 풋볼 연맹으로부터 아일랜드 국가 럭비 연맹을 위한 노래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그때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공화국 둘 다를 대표하는,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노래로 썼던 노래가 바로 "아일랜드의 소명(Ireland's Call)"이었다. 이 노래는 아일랜드 국민들의 가슴에 애국가처럼 각인되었다. 적어도 이 노래 발표 이후 아일랜드 국민들 가운데 그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 쿨터는 아일랜드 최대의 국민 아티스트다. 20여개의 플래티넘 레코드를 보유하고 있고, 그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외에도 전 세계 애호가들의 가슴속 깊이 매료시킨 앨범들은 부지기수다. 본 음반은 이제까지 그가 남긴 베스트 넘버 가운데 매우 아름답고 중요하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들만을 엄선해서 한 장의 CD로 만든 것이다. 역시 첫 곡

'어떤 꿈이라도 이뤄질 거야(Any Dream Will Do)'부터 필 쿨터의 잔잔한 정서와 희망에 대한 메시지가 한껏 느껴진다. 이어서 영화, OST, 혹은 국내 CF를 통해 널리 알려진 명곡 '아침이 열렸다(Morning has broken)'가 펼쳐지고, 빅 히트 음반을 통해 혹은 방송을 통해 많이 들던 '집에 데려다 주오(Take me home)'는 반가운 마음에 '아! 이 음악'하며 무릎을 치게 될 것이다. 이번 음반의 특징 중의 하나는 향수를 자아내는 애창곡과 민요를 다수 포함시켰다는 점인데, 바로 '아름다운 꿈꾸는 사람(Beautiful Dreamer)', '애니 로리(Annie Laurie)', '샬리 가든(The Sally Gardens)', '희망의 속삭임(Whispering Hope)', '트랄리의 장미(The Rose of Tralee)', '기념일 노래(Anniversary Song)', '강물이 넓으니(The Water is Wide)' 같은 음악들이 그것이다. 다른 앨범을 통해 자주 들을 수 있는 음악이긴 하지만, 필 쿨터의 본능적인 서정으로 여과되어 모두 색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한 시간 남짓한 음반, 분위기의 흐름을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곡을 편안하게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앨범 수록 곡]

01. Any Dream Will Do 어떤 꿈이라도 이뤄질 거야
02. Morning has Broken 아침이 열렸다
03. Take me home 집에 데려다 주오
04. The Flight of the Earls 비행하는 백작들
05. Beautiful Dreamer 아름다운 꿈꾸는 사람들
06. Annie Laurie 애니 로리
07. The Sally Gardens 샬리 가든
08. Whispering Hope 희망의 속삭임
09. Lament for the Wild Geese 기러기의 슬픔
10.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11. Nearer My God to Thee 내 주님께 더 가까이
12. The Rose of Tralee 트랄리의 장미
13. The Green Glens of Antrim 앤트림의 푸른 골짜기
14. The Anniversary Song 기념일 노래
15. The Water is Wide 강물이 넓으니
16. One Day At a Time 한 때 어느 날



러시아의 영혼, 은빛 목소리...

올렉 뽀구진 Oleg Pogudin

‘유명하다’는 말은 어떤 사건이나 존재가 우리의 눈과 귀에 자주 등장하여 익숙하게 느낀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누구든 대중매체를 통해 자주 등장하면 유명해지는 것이다. 러시아 가수 올렉 뽀구진. 2003년 ‘러시아의 비가’란 제목의 음반이 국내에 소개되기 전까지, 그의 이름은 우리 대중에게 무척 낯선 것이었다. 그에 관한 얘기가 대중매체에서 회자되지 않았고 국내에서 그의 음반을 소개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뽀구진은 아울로스 미디어(당시 아울로스 뮤직)에서 음반을 처음 내놓을 때, 막 유명해진 가수가 아니었다. 그 시점에 그는 이미 10여 년간 활동을 했고, 10여장의 음반을 내놓았던 유명 가수였다. 우리에게만 잘 알려져 있지 않았을 뿐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음반 재킷을 훑어보며 ‘이 가수는 누구지?’ 하며 생경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우리 애호가들도 뽀구진을 아주 짧은 시간동안만

무명가수로 봐야했다. 정말 ‘잠시’ 뿐이었다. 실제로 뽀구진의 음반을 들었던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매혹되었고, 그의 이름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가수처럼 매우 가깝게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노래가 독특한 흡인력이 있음을 암시하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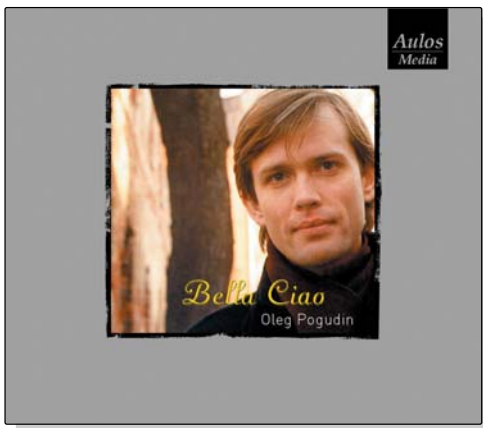
올렉 뽀구진은 1968년 12월 22일 레닌그라드에서 태어났다. 11살이 되던 해인 1979년에 레닌그라드 어린이 방송 합창단에 들어가 1982년까지 합창단원으로 활동했는데, 뽀구진은 이미 그 시절부터 음성이 그렇게 청명했고, 다른 아이들과는 많이 차별되는 성악기교를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 1985년부터 1990년까지 레닌그라드 국립 극장, 영화 음악원에 다닌 후 1990년부터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극장에서 배우로 활동했다. 그의 첫 음반 ‘사랑의 별’은 배우생활을 하던 이 즈음에 발매된 것이었는데, 음반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뽀구진은 본격적으로 가수의 길에 들어섰다. 당시 그의 노래를

들었던 저명한 작곡가 가브릴린(Gavrilin)은 그에게서 놀라운 재능을 발견하고는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그의 노래를 처음 듣고 단번에 매혹되었던 우리 애호가들의 행복감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1993년부터 뽀구진의 활동은 러시아 대륙을 넘어 해외로까지 힘차게 전개되었고, 콘서트를 열면 모든 티켓이 일찌감치 매진되는 일이 잦았다. 독특한 미성에 진중한 표정, 거기다가 배우 출신의 출중한 외모까지 겸비한 가수 올렉 뽀구진을 모셔가려는 방송사들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졌고, 결국 그는 수차례에 걸쳐 방송출연까지 했었다.

뽀구진의 음성은 흔히 ‘은빛 목소리’로 불린다. 그의 음성은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묘한 분위기를 내는 은빛과 같다. 애잔한 슬라브 정서를 가득 싣고 있고 노래하는 그의 음성은 슬픈 노래들과는 특히 잘 융화되지만, 결코 처연한 신

파나 값싼 슬픔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는다. 말쑥한 그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이미지처럼 그의 음성은 항상 이지적인 높이를 견지하고 있다. 그리고 매우 안정된 음성으로 목소리를 교묘하게 변화시키는 테크닉도 대단히 뛰어나다. 하지만 그의 테크닉은 가사에 담긴 내용의 다양한 감정표현과 오묘한 색깔을 내는데 적절히 사용될 뿐, 멋지게 보이려고 재주를 부리거나 꾸미는 일은 거의 없다.

그는 분명 테너 음역에 속하는 음성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그의 음성의 중요한 매력은 중역과 저역에 있다고 본다. 특히 영혼을 뒤흔들 듯 떨리는 중 저역의 바이브레이션이 우리의 가슴에 커다란 높이의 밀물처럼 육박할 때 그 호소력은 대단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목이지만, 그의 음성에서 끊임없이 발견하게 되는 것은 진실과 경건이다. 러시아 로망스는 치열하게 살아온 러시아 민중의 노래이며 위대한 시인들의 영혼을 풀어 쓴 음악이다. 뽀구진의 음성이 지닌 진실함과 경건성이 러시아 노래에서 주효하는 이유가 되는 대목이다.



AMC2-076

위대한 시인의 얘기, 가령 온통 삶 전체를 고뇌하며 살았던 푸슈킨이나 레르мон토프의 시를 읊으면서 진실함과 경건성이 피상적으로 표현된다면 시의 본질적인 의미는 모두 퇴색하고 말 것이다.

이번 음반은 2005년에 발매된 것으로 러시아어의 앨범제목은, 영어로 바꾼다면, “The Concert: Selected I”, 암시하는 내용 그대로 콘서트 실황, 즉 2004년 7월 20일 모스크바 ‘메리디언’ 콘서트 센터에서 있었던 공연 내용이다. 레퍼토리는 러시아 노래들이 대부분, 그 외 영화음악, 이탈리아 노래, 샹송 등 다양한 음악들을 가미해 모두 22개 트랙에 담았다. 당연히 러시아 노래를 아주 통달한 듯 유창하게 불러낸다. 실제로 뽀구진의 레퍼토리 폭은 상당히 넓어서 러시아 로망스를 포함하여 그가 부를 수 있는 노래는 5백곡이 넘는다고 한다. 뽀구진의 노래를 반주하고 있는 악기들 가운데는 바이올린, 기타, 아코디언의 역할이 두드러져 있다. 그가 부르는 러시아 노래는 우리가 익히 경험해왔던 대로 언제 어디서 들어도 그 자리를 숙연한 분위기로 만들 만한 것이다. 모두 주옥같은 단편들이지만 영혼에 호소하는 은빛 음성을 가장 잘 감동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곡 하나만 고르라면 9번 트랙의 ‘가지 마오, 조금만 더 있어줘요’를 집어낼 것 같다.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는 사람의 심정을 가득 담아 노래하는 뽀구진의 노래를 들으며 가슴 뭉클하고 머리끝이 서는 경험을 하게 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후반부에서 그가 들려주는 몇 가지 특선은 그야말로 별미다. 영화 <대부>에 나오는 사랑의 테마를 ‘부드러운 사랑으로 말해주세요(Speak softly love)’란 영어가사

로 노래하고 있는데, 물론 앤디 윌리엄스가 불러 빅 히트했던 것이다. 이탈리아의 민중가요 ‘벨라 차오(Bella ciao)’는 속삭이듯 시작하더니 정열적인 투쟁가처럼 격렬하게 마무리하는데 그의 음성으로 듣는 이들도 참 좋다. 주지하듯이 이 유명한 노래는 제 2차 세계 대전 당시 이탈리아와 독일의 파시즘에 저항해 투쟁하던 파르티잔(빨치산)의 노래인데, ‘벨라 차오’의 뜻은 ‘아름다운 안녕’,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운명에 직면한 한 파르티잔 청년이 사랑하는 애인을 놓고 떠나며 부르는 이별노래다. 이탈리아의 역사속에서 만들어진 비감 어린 슬픈 사연의 노래를 뽀구진이 깊이 감정이입 해서 부른다. 그는 유명한 샹송 ‘파리의 하늘 아래(Sous le ciel de Paris)’와 ‘아니에요,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Non, je ne regrette rein)’ 까지도 멋지게 불러준다.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로 유명한 이런 샹송까지 기막히게 부르는 그를 대하고 있으니, 그가 샹송 가수를 했어도 크게 성공했을 것이라는 상상까지 하게 된다. 콘서트가 완전히 무르익은 분위기에서 그가 불러주는 곡은 ‘진진진’과 더불어, 적어도 우리 애호가들에게는, 그의 대표곡처럼 여겨지는 ‘가리, 가리, 마야 즈비즈다(‘빛나라, 빛나라, 나의 별이여’). 이곡을 부른 후 뽀구진은 길게 이어지는 열광적인 환호와 박수사례 때문에 마지막 노래(R. Bac moon)를 쉽게 잊지 못한다. 노래가 모두 끝나면 다시 브라보와 박수가 길게 이어진다. 그의 감동적인 가창에 폭 빠진 사람들의 가슴에 들뜬 환호가 아니라 고요한 여운이 들어선다. 감동 받은 주위의 모든 것은 고요해진다.

[앨범수록곡]

01 И тихо, и ясно 이 적혀, 이야스나 || **고요하고 맑은데**02 Ночь светла 노치 스베틀라 || **밝은 밤**03 Колыбельная 칼로이벨나야 || **자장가**04 Канареечка 까나레예치카 || **카나리아**05 Забыли Вы 자브일리 브이 || **당신은 잊었군**06 У зари-то, у зореньки 우 자라-떠, 우 조렌끼 || **노을은, 노을은**07 Очаровательные глазки 아차로바렌노이에 글라스끼 || **매혹적인 눈**08 Несе Галя воду 네세 갈랴 보두 || **갈랴가 물을 길어오네**09 Не уходи, побудь со мною 네 우하지, 빠붓지 사무노이 || **가지 마오, 조금만 더 있어줘요**10 Коробейники 까라베이나끼 || **보부상**11 Танго (Магнолия) 탕고 <<마그놀리아>> || **목련**12 Спи, мой бедное сердце 스뽀, 마요 베드노예 세르체 || **잠들거라, 나의 불쌍한 심장아**13 Грустить не надо 그루스찌찌 나다 || **슬퍼할 필요 없어**14 Застольная Волховского фронта 자스톨리나야 볼호프스코보 프론다 || **볼호프스끼 전선의 연회 노래**15 Цветок 츠베크 || **꽃한송이**16 Bella ciao 벨라 차오 || **아름다운 안녕**

17 Speak softly love / Love theme from "God father"

18 Sous le ciel de Paris || **파리의 하늘 아래**19 Non, je ne regrette rein || **아니에요, 그 무엇도 아무것도 아니에요**20 Любовь останется 류보프 아스파넷차 || **사랑은 남으리**21 Горько, горюмая звезда 가리 가리 마야 즈비즈다 || **빛나라 빛나라 나의 별이여**22 Я Вас люблю 야바스 류블류 ||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Opus ARTE
www.opusarte.com

Opus Arte DVD



Opus Arte OA 0968D

오펜바흐: 호프만의 이야기

호프만이 사랑한 세 여인 중
작곡가 오펜바흐도 가장 사랑한 여인은?

자크 오펜바흐는 오페레타 작곡가로 성공했지만 진지한 오페라에 있어서도 불멸의 명작을 남기고 싶었다. 그래서 병든 육신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열정을 불태운 작품이 독일의 문호 E.T.A 호프만의 소설들을 재구성한 <호프만의 이야기>이다. 결국 완성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당대와 후대 여러 편집자들의 다양한 판본이 존재한다. 지난 30년간의 경향은 인형 올랭피아, 창녀 줄리에타, 병약한 안토니아라는 전통적 구성의 둘째와 셋째 순서를 바꾼 것이었다. 이것이 오펜바흐의 원래 계획이었다는 것. 그런데 잔카를로 델 모나코(테너 마리오 델 모나코의 아들)의 연출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돌아갔다. 오펜바흐의 이상의 여인은 안토니아라는 것이다. 음악적으로 보더라도 올랭피아는 오페레타 주인공에 가까우며 줄리에타는 화려하지만 천박한 삶에 가깝다. 그러나 안토니아는 정통 오페라 리릭의 비극적 주인공인 것이다. 전성기를 맞고 있는 테너 아킬레스 마차도가 호프만을, 스페인의 대표적 리릭 소프라노 마리아 바요가 안토니아를 부른 스페인 빌바오 오페라하우스의 최신 실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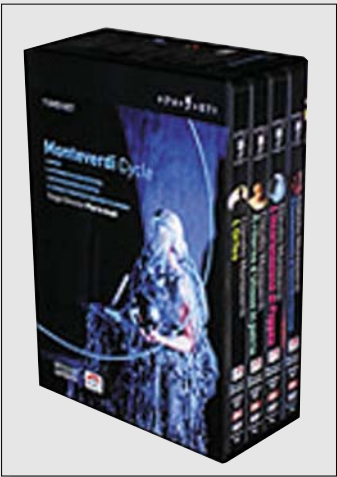
[보충 자료]

○ 잔카를로 델 모나코는 현재 오페라 연출에 있어서 보수적 전통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현대적 연출이 득세하면서 한때 그 위상이 하락하는가 싶었지만 최근에 다시 많은 프로덕션을 맡으면서 새로운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미술에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어 종종 무대 세트와 의상까지 도맡곤 하는데, 이번에는 마이클 스코트에게 세트와 의상을 맡기고 <라보엠>에 영화적인 감각을 불어넣는데 전념하고 있다.

○ 로돌포를 노래하는 베네주엘라의 아킬레스 마차도는 멕시코의 롤란도 비야손, 페루의 후앙 디에고 플로레스와 더불어 남미 출신 테너의 전성시대를 열고 있는 기대주이다. 작은 키와 결코 잘생겼다고 할 수 없는 외모가 핸디캡이지만 청아하고 순수한 미성만큼은 흠잡을 데 없으며 최근에는 연기력도 크게 향상되어 유럽 메이저 극장 무대에 자주 출연하고 있다.

○ 마리아 바요는 스페인의 위대한 가수 테레사 베르간자의 제자로서 소리 자체의 경묘함과 유연성이 뛰어나 로시니 오페라에 장기를 발휘했다. 지금은 스페인을 대표하는 소프라노로서 레퍼토리의 폭이 확장되었다.

○ 빌바오 오페라하우스는 퇴조한 공업도시에서 스페인 북부를 대표하는 문화관광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빌바오의 랜드마크 중 하나이다. 이곳에서 열리는 세계적 수준의 콩쿠르와 더불어 빌바오는 바르셀로나, 마드리드에 버금가는 오페라의 주요 도시로 부각되는 중이다.



Opus Arte OA 0972BD

- * L'ORFEO (오르페오)
- * IL RITORNO D'ULISSE IN PATRIA (율리시스의 귀환)
- * L'INCORONAZIONE DI POPPEA (포페아의 대관)
- * IL COMBATTIMENTO DI TANCREDI E CLORINDA (탄크레디와 클로린다의 전투)

명 연출가 피에르 아우디가 선사하는 몬테베르디의 환상의 무대. 피에르 아우디는 베이루트에서 태어나 프랑스에서 성장한 세계적인 오페라 연출가이다. 1979년 런던에 알메이다 극장을 설립하면서 연극계의 총아로 급부상했고, 1988년부터는 네덜란드 오페라의 예술감독을 맡음으로써 세계 최정상급 오페라 연출가고 인기몰이 중이다. 바그너의 '반지'와 더불어 그가 네덜란드 오페라에서 이루었던 가장 큰 성과로 손꼽히는 몬테베르디 4부작이 드디어 DVD로 완결 출시되었다. 그 중 오페라 역사의 튼튼한 주춧돌이 되었던 몬테베르디의 오페라3부작(오르페오, 율리시스의 귀환, 포페아의 대관)은 이미 낱장 DVD로 출시되면서 오페라 및 고음악 애호가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영상물들이다. 이번 박스 패키지를 통해 보다 경제적으로 이 값진 영상물들을 접할 기회가 다시금 마련되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큰 선물이 더해졌다. 마드리갈 8권 중에 포함된 일종의 극적 마드리갈인 <탄크레디와 클로린다의 전투>를 아우디가 오페라 포맷으로 연출한 것으로 이번에 최초로 DVD로 발매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낱장발매가 계획되지 않았기에, 이번 박스패키지가 이 영상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될 것이다. 크리스토프 루세(포페아), 스티븐 스티프스(오르페오), 글렌 윌슨(율리시스) 등의 고음악계 최고의 지휘자들과 존 마크 애인즐리, 마이클 찬스, 안소니 롤프 존슨, 브라이언 아사와, 클레리 맥파든, 신시아 헤이몬과 같은 정상급 가수들이 펼치는 초기 바로크 오페라의 성대한 제전을 놓치지 마시라.



Opus Arte OAF 4021D

모차르트: 비밀 결혼

모차르트의 명작 오페라에 필적하는 18세기 오페라 부파의 최고 걸작 19세기 고전주의 시대의 오페라 부파로는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과 <코지 판 투테> 그리고 경계가 다소 모호한 스타일인 <돈 조반니>가 꼽힌다. 그러나 당대 이탈리아의 작곡가 도메니코 치마로사의 <비밀결혼>도 절대 간과되어서는 안될 걸작이다. 치마로사는 명쾌한 선율, 유려한 흐름, 가수들의 스타일을 정확하게 배려한 가창법 등 모차르트를 연상시키는 부분이 많으며 협주곡 등 기악곡에 있어서도 모차르트와 가장 많은 공통점을 보유한 일류 작곡가였다.

<비밀결혼>은 당대의 결혼 풍속도를 풍자하여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 오늘날까지도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볼로냐의 부유한 시민 제로니모는 재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두 딸 카롤리나와 엘리제타를 귀족에게 시집보내려 한다. 그런데 이미 카롤리나는 아버지의 비서인 파올리노와 눈이 맞아 비밀결혼식까지 올린 사이였으니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꼬?

1986년 스위스의 루가노 실황인데 필리포 크리벨리의 연출과 에마누엘레 루차티의 무대 및 의상은 18세기 오페라 부파의 연주 양식에 있어서 가장 정통적인 방식을 구현했다.

NAXOS DIGITAL SERVICES

2005년 그라모폰 올해의 레이블로 선정,
세계 최대 클래식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는 **NAXOS**는

방대한 자체 레퍼토리와 유럽 음반사들의 음원들을 더한
클래식 전문 스트리밍 사이트인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와
재즈 전문의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를 선보입니다.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korea

- 약 15,000개 음반 / 210,000여 트랙의 클래식, 재즈, 월드뮤직 음악 서비스
- Naxos & Marco Polo 전체 레퍼토리와
- Analekta, ARC, Artek, BIS, Bridge Records, CBC, Celestial Harmonies, Collegium, Dacapo, First Edition, Gimell, Hänssler, Morrison Music Trust, PentaTone, Prophone, Proprius, Toccata Classics 레이블의 음악
- 매달 25~30여장의 음반 업데이트
- 오페라 대본, 작곡가, 아티스트 및 작품 해설 등의 유용한 정보제공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jazz

- Naxos Jazz와 Fantasy Jazz 등 22개 유럽 재즈 레이블 음악
- 총 2,000여 개 재즈 음반 / 약 20,000 트랙
- 약 500여명 에 이르는 재즈 뮤지션들의 음악

“거대한 음원의 바다...”

(그라모폰 코리아)

“지금까지 접해본 가장 인상 깊은 디지털 라이브러리.”

(미국 도서관 저널, 평가 등급 A+)

“시·공간이 절약되는 온라인 콘텐츠”

Sound Quality: CD Quality (128K) / Near-CD Quality (64K)

시범서비스 & 문의

NAXOS KOREA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 51-37 이태크빌리 1206호
Tel_02 717 1070 / E-mail_naxoskorea@naxos.com
www.naxoskore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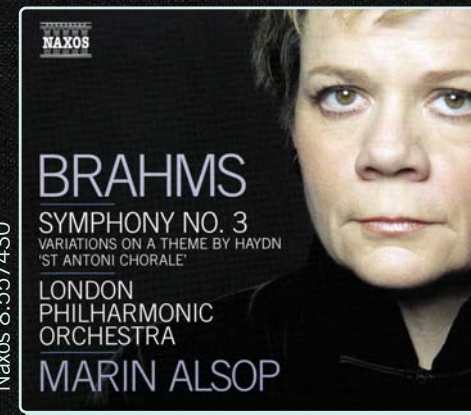


그라모폰 2007년 3월호
에디터스 초이스
“리처드 오스본 극찬”

브람스

교향곡 3번

하이드 주제에 의한 변주곡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마린 알소프

우먼파워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마린 알소프.

본머스 심포니에 이어서 볼티모어 심포니의 차기 음악감독으로 임명되면서 성별을 초월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녀는 낙소스가 자랑하는 간판급 지휘자이기도 하다. 알소프가 진행 중인 브람스 교향곡 사이클의 세 번째 음반이 출시되었다. 교향곡 3번은 일명 브람스의 영웅교향곡이라고 불린다. 영웅적인 1악장 외에 2,3악장에서의 감미로운 선율의 아름다움도 각별한 작품이다. 하이드 주제에 의한 변주곡이 함께 수록되었다. 그라모폰의 저명한 필자 리처드 오스본은 “참으로 오랜만에 듣는 최고의 연주”라고 했으며 특히 하이드 주제 변주곡을 극찬했다.



표지사진 : 알프레드 코르보

월간 <아울로스뉴스> 2007년 3월호

통권 제 20호 발행 : 2007년 2월 24일

발행인 : 임용목

출력 : 좋은그림 인쇄 : 투데이아트

발행처 :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주소 :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 02-922-0100, 팩스 : 02-922-2522

홈페이지 : www.aulosmedia.co.kr

e-mail : aulos@aulosmusic.co.kr

원고 및 광고문의 : 02-922-0100(대)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